

유체이탈의 경험을 통해 찾아낸 인간내면④

로버트 먼로 / 박형삼 옮김

이번 호에서는 유체 이탈 및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된 로버트 먼로가 충돌도 없고, 화냄도 경쟁도 없는 삶의 존재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고향(Home)으로 돌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러 주가 걸렸다. 이곳에서 얻은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돌아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시도를 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은 아닌, 아련한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분명히 예고와 예고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깨달음(Known)이 얻어졌다. 나는 내가 왜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새로운 인스펙(INSPEC) 친구와 함께 또 한번의 의미 있는 방문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둘 다일 수도 있다. 늘 익숙한 끝없는 암흑 속의 한 곳, 그 밝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스펙: (고향을)잃어버렸다는 느낌은 사라질 거야.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나는 더이상 그곳 사람이 아니야. 그곳의 모든 것은 예전과 똑같았어. 그러나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어. 어른이 된 후에 어릴 때 입었던 코트를 입고 장갑을 끼려고 하는 것과 같았지.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서 생활할 수가 없단 말

이야. 나는 너무나 달라졌어.

인: 음. 그런 생각 때문에 슬퍼졌구나.

그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야. 나의 일부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인: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되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해.

그래. 이미 나는 그 생각을 버렸어.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향과 지금의 고향이 정말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고향은 내가 떠나오기 전에 기억하고 있던 그대로였어.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어. 고향이 어느 정도라도 발전되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애. 그러나 정작 고향이 달라보였던 것은 그 고향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였다. 충분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들어보면 모든 것이 계속 스스로 되풀이 되고만 있음을 알았을 거야. 그곳에는 흥미로운 것도, 새로운 것도 없어.

인: 그 에너지의 패턴말이야... 그것은 인간의 존재 상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 그 반복이라는 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고향을 말이야. 그곳엔 성장도, 배우고 경험할 새로운 것도 없었어. 그러나 이 지구의 삶 속에는 늘 뭔가 배울 게 있지. 변화와 새로운 배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렇더라도 이제 내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해. 그 생각은 다루기가 쉽지 않아.

인: 그래도 너는 그 생각에 익숙해질 거야. 이것은 네가 더 이상 인간으로 되

돌아 갈 수 없다고 깨닫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때, 그 생각에 적응하게 될 것처럼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도 적응하게 될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구나. 네가 지금 인간이라고 부르는 옷과 장갑보다 더 크게 성장했을 때는 더 이상 인간의 존재로 되돌아 갈 수도 없고 되돌아 갈 필요도 없는 거지.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인간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때가 올 거라는 말이야? 그때가 오면 나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

인: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야.

글쎄...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인: 너는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알' 게 될 거야. 너도 이 말을 좋아하잖아.

고마워. 고맙다는 말로 충분치는 않겠지만.

인: 천만에. 우리도 이해해.

그 밝게 빛나던 형체(INSPEC)가 희미해지더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나는 무사히 육체로 돌아왔다. 이 만남이 이루어진 후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그 전의 목표보다 더 큰 또 하나의 목표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인스펙과 같이 외경스럽고 따뜻한 존재로 성장하고 진화해 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바람과 결심을 가지고 인스펙 친구가 나에게 보여준 부드러운 격려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평화와 흥분, 단순함과 복잡함, 앞과 미지가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 기분은 내가 인스펙 공간의 가장자리를 잠시 방문하고 싶다고 하여 그 인스펙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을 때 최고로 커져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몰입과 사랑이 나를 관통하여 뻗치고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거의 감지할 수가 없었으나,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의 집단 속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존재들의 흐름도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층으로 이루어진 지성 형성 에너지(Layered Intelligence-Forming Energy, LIFE)라고 느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곳이 나의 새로운 고향 같은, 내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그 이상의 느낌이었다. 내가 그들의 일부였고, 그들은 나의 일부인 듯했던 것이다.

흥분과 고요함이 뒤섞인 그곳의 느낌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왜 이러한 조화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나는 그 후에 나의 인스펙 친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이것을 물어보았다. 그때 우리는, 후에 내가 알게 된 신념 체계 구역(Belief System Territories)을 구성하고 있는 고리들의 바깥 가장자리 너머에서 부유(浮游)하고 있었다. 신념 체계 구역(Belief System Territories)은 지구 생명체 구역(Earth Life System)에 인접한 M장 스펙트럼(M Field spectrum)의 부분인데, 많은 영혼들이 육체에 삶의 경험을 마친 후에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지구 둘레를 반투명의 구(球)들이 둘러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구들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둘레가 더 커지고 층은 얇아졌다. 우리가 이 구조에서는 전자나 분자들이 아닌 비물질적 에너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했다.

인: 네가 구조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해 너의 문명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신기하군.

아마 그들은 이 조직의 양상들에 대해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될 거야.

인: 네가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 알게 되지는 못할 거야.

만약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난장판들을 깨끗이 치울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그 난장판들의 상당 부분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저질러진 것들 같아. 고통, 가슴아픔, 폭력, 감정들 말이야. 이런 난장판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받아들이기엔 힘들다.

인: 아마도 너는 기회가 오면 다른 전체적 관점을 갖게 되겠지.

내가 그것들에 대해 다른 전체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내가 그 난장판들에 대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니?

인: 물론이지. 너와 너의 친구들에게 말이야.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존재와 매우 다른 존재의 상태를 방문하면 너에게 도움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지금의 인간 조직과 다르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에 더욱 잘 맞는 그런 인간들의 조직이나 시대를 방문한다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 곳을 내가 방문할 수가 있다는 말이니?

인: 그것을 바라다면 가능하지.

내가 방문하는 동안에 내 곁에 있어 주겠니?

인: 기꺼이! 그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니?

네가 천천히 움직이면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인: 아니, 너는 이미 그 기술을 알고 있단다. 네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갈 때 사용했던 기술을 사용하면 돼. 목적지가 네가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다를 뿐이야.

알았어. 네가 앞장서면 뒤따를 게?

그 빛나는 형체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그 형체가 갑자기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과 가까이 있었다. 나의 반응은 자동적이었다. 지구의 에너지 패턴이 암흑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그 어둠 속에서 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내 앞에서 그 밝게 빛나는 인스펙 친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커다란 계곡 위 대략 1Km 위에 있었다. 그 계곡은 길이가 13Km내지 16Km정도였으며 폭은 약 8Km정도 되어 보였다. 눈 덮힌 산봉우리가 그 계곡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특 트여진 앞 쪽으로는 숲과 들녘이 펼쳐져서 수평선과 닿아 있었다. 뭉게 구름이 떠 있는 푸른 하늘에는 밝은 태양이 떠 있었다.

우리들 바로 아래는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거주지가 있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나무의 잎들은 온갖 다양한 색조의 녹색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나무들 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작은 오솔길들이 이리 저리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집도 건물도 연기도 매연도 없었다. 공기는 아주 깨끗했고 맑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본 뒤 인스펙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들도 없고 건물들도 없는 거야?

인: 잠자는 곳은 지하에 있어. 장인(匠人)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지?

인: 저 밑 나무들 사이에 있어. 지금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야.

사람들은 얼마나 있니?

인: 우리가 알고 있기론 200만 명이 조금 넘어.

200만이나 된다고?

인: 그래.

이런 거주지가 얼마나 있지? 이곳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같은데, 맞니?

인: 그래 바로 맞았어. 지구야. 그리고 이곳 같은 거주지는 다른 곳에는 없어.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야.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이들밖에 없다는 것이니?

인: 맞아

수십 억에서 이렇게 인구가 적어진 이유는 묻지 않을 게... 이것이 우리 미래에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지?

인: 틀렸어 친구.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

잘못된 방향이라니 무슨 말이지?

인: 네가 시간을 언급하니깐 말인데, 그 시간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곳은 지구의 과거야.

과거라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것과 조금이라도 닮은 것이 없는데도 말이니? 그럼 이걸 틀림없이 아주 아주 오래된 과거임이 틀림없어.

인: 그래 아주 오래 된 과거지. 너희의 연수로 따지면 거의 백만 년 정도의 과거야.

이곳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인간이니? 나와 같은 인간이야?

인: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확실히 인간들이야.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니?

인: 물론이지.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 아니겠어?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을까?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니?

인: 그래, 아무 어려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까?

인: 오히려 반대야. 우리를 반겨 맞이할 거야.

그리고나서 우리는 숲을 향해 떠나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축구 경기장 만한 크기의 탁 트인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공원이었다. 아니, 내가 알 수 없는 꽃들과 식물들이 단정하면서도 불규칙적으로 펼쳐져 있는 커다란 정원이었을

수도 있다. 이들 정원 사이로 넓고, 풀이 덮혀 있는 길들이 급한 곡선 모양으로 굽이쳐 있었다. 발 밑의 풀들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인: 너는 풀을 느낄 수가 있단다. 물질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똑같이 느낄 수가 있지. 그러나 너는 물질적인 존재는 아니야.

나는 옆을 돌아봤다. 그 밝게 빛나는 인스펙의 형체가 내 곁에 있었다. 네 사람이 우리들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약 150cm정도였고 머리색과 피부색이 각각 달랐다. 이들의 머리칼은 모두 똑같이 귀 바로 밑까지만 내려왔다. 이들의 얼굴과 몸은 활발하고 운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30대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남자였고 두 사람은 여자였다. 이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기 쉬웠다.

인: 이들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단다.

따뜻하게 지내려면 옷을 입어야 하지 않니?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인: 이들 개개인은 그런 목적을 위한 개별적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보이는 데.

인: 네가 말하는 마음이란 표현을 쓰자면, 다 마음 속에 있지.

너는 이곳에 전에도 와 본 적이 있나보구나?

인: 그래... 말하자면 말이야...

이들 네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어보이며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완벽한 상태의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를 궁금해 하고 있었다. 이들이 우리를 볼 수 있을까?

이들 남자들 중 한명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서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물론 우리는 당신을 볼 수 있어, 로버트. 의사 소통도 쉽고, 우리가 당신들의 영어를 사용할게. 좋지(OK)?”

그 ‘좋지(OK)’라는 말이 나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 이곳엔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 듯했다. 어떻게 이 남자가 미래에 사용되는 미국식 속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OK란 말을 당신의 마음에서 받아들여.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그의 입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우리 둘은 웃었다. 물론 그것도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인 것이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인스펙 말고 또 다른 새 친구를 만난 것이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느끼는 거의 모든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의 모든 대화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일종의 생각 전달(thought transference)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곳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군.”하고 내가 말을 시작했다.

“날씨도 매우 좋아. 우리는 식물들의 잎을 씻어내고 물을 주기 위해 매일 오후에 천둥을 일으키지.”

“번개도 같이 치니?”

“그래 같이 친다. 번개가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의 강도로 내리쳐야 할지를 통제할 수가 있단다. 이 번개에서 나오는 전류는 탄소가 삶의 기본이 되는 모든

생명체들에겐 중요한 요소지.”

“그런데 바람은? 바람도 통제를 하고 있니?”

“바람이라고? 바람을 더 세게 불게 할까?”

“아니, 괜찮아… 됐어…”

그는 활짝 웃었다. 그러면서 “너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다.

“너희들 모두 잘 먹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건강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질병도, 아픔도 없는 상태 말이야.”

“너는 이상한 세계에서 왔구나! 너희들은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지.”

“가엾구나. 우리의 역사에서도 수천 년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단다.”

“이곳에 벌레는 안 사니? 바이러스도 없고? 이곳에선 아무도 죽음을 당하거나 다치지 않니?”

“네가 무슨 말은 하는지 알겠구나. 저 벌레들과 바이러스들은 우리와 같이 함께 도와 가며 살아간다. 우리들 사이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없어.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 말이야, 그건… 우리는 오래 전부터 네가 말하는 죽는다는 것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았어.”

나의 마음 속에는 많은 생각들과 질문들이 일어났다. 갑자기 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렇다면 너희들 말이야, 음 저기 말이야, 생식 능력을 조절해야 하지 않아?”

“그럼 물론이지. 그리고 아직 묻지 않은 네 질문에도 대답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그 의식을 즐기고 있어!”

“그런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잖아…”

“우리들에겐 많은 아이들이 있다. 한번 만나 보겠니?”

“그래 한번 만나 보자”

“그렇다면 애들을 불러볼 게.”

나의 머리 속에는 여러 음색의 헛바람 소리가 들렸다. 새들의 노래처럼, 아니 음악의 한 장르처럼. 숲 속에서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동물들이 튀어 나와 이들 네 사람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껴안았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그 동물들을 쓰다듬고 다독거렸다. 어떤 것은 고양이를 닮았고 어떤 것은 파충류였으며, 작은 악어나 큰 뱀처럼 생긴 것도 있었다. 또 원숭이를 닮은 것, 긴 등갈퀴와 긴 꼬리를 빼면 사슴류 같은 것도 있었다. 한 무리의 벌떼가 한 나무에서 갑자기 나오더니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가 우리를 지나치며 아래로 다이빙을 해서 급하강했다. 머리 위에서는 커다랗고 밝은 녹색 빛을 띤 새들이 우리를 내려다 보면서 원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작은 파랑새가 나의 새로운 친구의 어깨에 내려 앉아 그의 귀 속에 재잘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하여 말했다.

“우리의 애들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내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아이들이라고 쉽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조금 전의 헛바람 소리를 기억하고 연습을 하면 너도 우리처럼 할 수가 있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니? 즉 지구의 짐승들 말이야. 그 짐승들도 우리의 아이들이란 말이니?”

“아니야 이 계곡에서만 그래.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는 책 속에서 너희들이 보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똑같아. 먹이 사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물론이지. 그것 때문에 지구에 있는 동물들이 죽잖아.”

“그렇지. 자연적 질서에 의하여 그 동물들이 죽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동물들, 즉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질서에 의하여 죽어 가지. 그래서 이들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는데 우리는 그 균형을 방해하지 않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니? 채소를 먹니?”

“먹는다고? 좋아, 내가 보여주지.”

나의 새 친구가 두 여자 중 한 여자를 향해 얼굴을 돌리자 그녀는 정원의 한 곳으로 걸어가서 검은 흙처럼 보이는 것을 손으로 퍼올렸다. 그리고는 한 움큼의 흙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 곁에 섰다. 나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차렸다.

“네가 좋아하는 옥수수나 황금초(silver queen: 십자화과의 다년생 초) 같은 것 먹고 싶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흙을 쥐고 있던 여자가 나를 찬찬히 쳐다보더니 흙 위에 다른 한 손바닥을 올려 놓았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찬찬히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 덮은 손을 떼더니 열린 흰색의 진짜 옥수수의 조그마한 알맹이를 보여 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 내밀었다.

“이 친구는 그 옥수수 알맹이를 받을 수가 없어. 지금 육체가 없거든”

나는 그녀가 웃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돌아서더니 그 알맹이를 옆에 있던 조그마한 갈색의 새끼 사슴들 중 한마리에게 던져 버렸고 그 새끼 사슴은 의심스러운 듯이 그 옥수수 알맹이의 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감정이 있음이 분명했다.

“우리는 네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했단다, 로버트. 우리는 감정을 소중히 여겨. 그러나 감정은 우리가 허락을 할 경우에만 우리들을 통제하지.”

나는 내 마음에 감사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인스펙 친구와 나는 오늘 네가 보여준 따뜻한 반깎에 대해 그리고 너희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여기 온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어. 서로 충돌도 없고 화냄도 없고 경쟁도 없고 말이야...”

“아니야, 우리도 경쟁은 있어. 그렇지만 경쟁에 너무 몰입해 그것이 하나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하지는 않지.”

나는 사랑에 대해선 물어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 네 명에게서 퍼져나오는 에너지를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언뜻 그들에게 기쁨과 함께 섞여 있는 슬픔이 보였다.

내 새로운 친구는 다시 웃었다. “네가 방문한 것은 참 시기 적절한 일이었어.

.....

왜냐하면 우리는 곧 이곳을 떠나기 때문이지. 이 계곡과 아이들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적응을 해야만 해.”

“떠난다고? 왜?”

“거의 백년 전에 신호(Signal)를 받았었지. 우리는 그 신호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백 년 전에 왔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괜찮아. 단지 네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때가 되면 너와 너희들 지구의 인간들도 우리처럼 알 거야. 우리는 이 물질 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곳의 모든 변화 패턴들을 경험했고 이해했다. 우리는 별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지. 지금 네가 하는 이동 방법을 이용해서 말이야. 그렇게 방문 해보니, 그 별들에서 이곳에 있지 않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어떤 별에서도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진정 새로운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이지...”

“그래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음... 호기심... 그래 호기심이야. 호기심만은 새로운 것이지.”

“그래 호기심이야. 그것이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런데 너희 네 사람만 떠나니?”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겠니? 너 같으면 네 손이나 아니면 손가락을 놓고 떠나겠니?”

“그렇다면 어디로 떠나려고 하니?”

“신호가 우리를 안내할 거야”

“도대체 그 신호란 것이 뭐니? 좀 설명을 해 주겠니?”

“그 신호는 준비를 통해서 올거야.”

“누구와 준비를 한다는 거니? 아니면 무엇과 그 준비를 한다는 거지?”

“우리보다 먼저 떠났던 사람들 중 한 명과 준비를 하지. 이들 모두가 약속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를 때가 되면 특별한 신호를 보내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약속대로 신호를 보내 왔

지.”

“그 사람은, 음... 그렇니까 너희들도, 음... 모두가 탐험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군. 정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탐험가들 말이야.”

“정복하려고 또 다른 세계를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란다, 로버트.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지.”

“너희들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아니?”

나의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신호만을 따를 뿐이지”

“지금 그 신호를 받고 있니?”

“물론이야. 우리가 그 신호를 인지한 후 줄곧 그 신호가 우리 곁에 있었어.”

“그런데 왜 나는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아마 신호를 인지하는 너의 감지 방법이 우리 것과 다른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신호가 백 여년 전에 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아직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니?”

“응. 그것은 여기에 있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애들이 우리들 없이도 살아가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훈련을 끝마쳤으니 우리는 이들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이들을 함께 데려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이제 오히려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됐음을 알았다.

“오늘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 정말 기뻐.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만 같군. 서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해.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하지만 더 말을 하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깨버리겠지?”

나는 손을 들어 작별의 인사를 했다. 이들 네 친구들도 풀밭 위를 떠나 위로 떠오르고 있는 나에게 역시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여행했던 인스펙 친구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없어도 최소한 되돌아가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세계에서 점차 빠져나와 암흑 속으로 흘러 들어 갔다. 그때 밝게 빛나는 인스펙 친구의 형체가 내 곁에 있는 것을 알았다.

인: 만나 보니 그들이 매우 흥미 있는 사람들로 느껴지지?

내가 전에 보았던 미래의 인간들과 아주 비슷하더구나. 미래의 사람들은 지구 너머에서 살고 이들은 지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차이만 있는 것 같아.

인: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척 친숙하게 느껴졌을 거야.

그랬어. 그곳 말고 방문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니?

인: 네가 바라는 것이 뭐지?

인간이 없는 곳이면 좋겠어. 그러나 지능이 있는 곳. 그리고 비물질적인 곳.

인: 그들이 허락한다면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지.

허락이라고? 별로 달갑지 않군.

인: 그들 중 일부는 너를 무시할 거야. 음...무슨 해충 같이 성가신 존재로 여길 거야. 그래 해충이라는 말이 적당하겠다.

그렇지만 너는 전에 내가 파괴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잖아. 나는 헤를 입을 수 없다고!

인: 물론 내가 그렇게 말했지.

좀 덜 고요한 곳을 가 보고 싶다. 흥분을 주는 곳 말이야. 내 말이 바보스럽게 들리니?

인: 아니,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번에도 나와 함께 있어 주겠니?

인: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단다. 나를 바짝 따라 와.

그 친구의 밝은 형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나는 전에 배웠던 속도에 맞추어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가 발산하는 에너지 장 가까이에서 따라갔다. 바로 앞의 작은 점 만한 빛과 함께 암흑 속에 있는 시간은 영겁의 세월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한 순간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밝은 색깔의 조그마한 점들이 폭발했는데, 이 점들은 불규칙한 몇 개의 형체를 띠고 있는 듯했다. 처음에는 밝은 초록색을 띠다가... 그 다음엔 노란색을 띠다가... 나는 그것들을 보고 있다가 밝은 오렌지 색의 점으로 끌려 갔다. 그 오렌지 점은 나를 꼭 쥐면서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빠져 나갈려고 하거나 무서워 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워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여러 차례의 울림(beats)이 나의 의식 안으로 치고 들어 왔다. 그 울림은 연속적인 전기 충격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강한 충격은 아니었지만 느낌이 좋지는 않았다. 나는 그 울림이 일종의 컴퓨터 언어, 즉 0과 1의 2진수 언어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와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살아 있는 유기체임을 확신했다.

그 울림은 계속되었고 나의 머리 속으로 쿵쿵하며 부딪혀 들어왔다. 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다소 미숙하지만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 소통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다. 나는 우리 태양계 내부의 모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세 번째 행성에서 시작하여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끝나는 화살표를 밀어 보았다. 이렇게 하자 연속적인 울림들이 반응을 했다. 이 울림은 원시적인 형태의 모스 부호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해

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차 내 마음이 이 울림에 익숙해지자 한 영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 들어가고 있는 화살표가 보였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란 말인가?

그 울림 멈춰졌다. 그리고 나서 짧은 패턴이 시작되더니 계속 반복되었다. 그 패턴은 긍정적 답, 즉 예스(yes)란 말인가?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었다. 나는 내 자신의 물리적인 몸의 그림을 창조하고 그것을 보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변형이 나타났다. 그것은 부정적인 답을 뜻하는 다른 패턴을 만들어냈다.

“이 패턴이 노(no)를 의미하니? 너는 나 같은 인간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니? 그래 좋아 인간이 뭔지 보여주기로 하지.” 그리고 나서 나는 한 그룹의 남자와 여자들을 그려서 전송했다. 그것은 내가 그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림이었다.

응답은 부정적이었다.

“너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니?”

또 다시 부정적 응답이 왔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알고 있구나?”

이번에는 긍정적 응답이었다.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그러나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단지 예스(yes)와 노(no)밖에 모르겠다.”

부정적 응답이었다.

“너는 내가 너를 이해하기 원하는가?”

부정의 응답이었다.

“그렇다면 나를 놔줘. 그러면 너의 에너지를 떠나 주겠다.”

울림들의 속도도 빨라지고 세기도 커졌다. 그리고 나서는 사라져 갔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격렬한 움직임 같은 것이 일어났다. 그 후 나는 다시 암흑 세계 속에 있었고 나의 밝게 빛나는 인스펙 친구가 내곁에 있음을 알았다.

인: 너는 단지 전체의 한 작은 부분과 의사 소통했어.

사람으로 치자면 손가락 같은 것과 대화했다는 말이지?

인: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그 손가락 같은 녀석에게서 인격은 눈썹만큼이라도 찾아 볼 수가 없더군.

인: 그러나 저런 존재들과 의사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과연 내가 저 존재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군.

인: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 바로 호기심이지. 내가 물질적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만나 교류해 볼 수 있을까?

인: 너는 내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물질적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또 너는 너무나 자유롭다. 네가 그런 말을 한 적은 한번도 없지만 나는 네가 전에 인간이지 않았나 의심스러워. 그 증거를 대보자면 너는 유머 감각이 있거든.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유머 감각말이야.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것이지.

잠시 서로 조용히 있었다. 인스펙의 밝은 빛이 순간적으로 깜박거리는 것 같았다.

인: 이제 네가 육체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래 그래야겠어. 여행 안내를 해줘서 고마워.

인: 나도 즐거웠어

나는 가득 차 있는 방광을 비워내기 위해 육체로 돌아왔다. 나는 육체로의 귀환 시점을 알리는 신호(signal)에 익숙해져 있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보잘 것 없지만 얼마나 재미 있는 일인가!(계속)

UFO와 정신과학

한국 UFO총연합회 편 / 하나로출판사



가장 권위있는 책은 <초극비 UFO(Above Top Secret UFO)-Timothy Good(1989)>인데 동서에 실린 UFO의 출현, 은폐, 비밀 구분의 불가피성, 공개의 부작용 등을 잘 다루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UFO가 상주하고 있는 곳은 미국 네바다 주 Area-51의 S-4지역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1995년 4월 네바다 주지사는 네바다 주 375호 고속도로를 UFO 하이웨이(High Way)라고 정식 명명하여 UFO의 실재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이 UFO는 NASA와 미공군 및 USSC(미 우주사령부)와만 접촉될 뿐이다. (머리말 중에서)